

아이들의 미세먼지 걱정 'No'

전주시, 내달부터 4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 대비 실내놀이공간 조성 체육시설·자연생태관·전통문화전당 등 공공시설 무료개방 추진키로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주시가 아이들이 걱정 없이 뛰어 놀 수 있는 실내놀이공간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시는 다가오는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11월~4월)에 대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실내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시는 단계적으로 기존 시 소유시설을 활용해 어린이 실내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아동

친화시설을 신규 조성하는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현재 유료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수영장, 빙상스케이팅장, 인라인롤러스케이팅장), 자연생태관,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어린이들의 실내놀이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팔복예술공장

2단계 예술놀이터, 개방형 창의도서관, 공공형 실내놀이터 등 현재 시에서 신규조성 중인 아동친화시설을 활용해 어린이 실내놀이공간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시는 이들 어린이 실내놀이공간에 공기청정기를 확대 배치하는 등 실내놀이공간의 공기질 개선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시 복지환경국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해소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보

호와 피해예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실내놀이 공간 조성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중심의 건강보호 및 피해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등(5000여대)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과 연계한 미세먼지과수준 양성교육 및 포럼 개최 ▲IoT(사물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도로 분진흡입차 도입·운영(2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펼치고 있다./김윤상 기자



사단법인 전주자원봉사센터는 17일, 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2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20만 봉사자와 함께 맞이한 '스무살 청춘'

전주자원봉사센터 설립 20주년 기념식

전주시를 나눔과 온정이 가득한 천사도시로 만들어온 전주 자원봉사센터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더 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사단법인 전주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17일, 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백영규 행정위원장·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이경신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전주시의원, 전현숙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무총장, 김기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전주지역 60개 자원봉사단체 회장과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자원봉사센터 설립 2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20만 자원봉사자의 땀방울이 모여, 숲을 이루고 길을 만들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념행사는 센터의 지난 2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센터와 자원봉사자, 행정, 기업, 일반 시민들이 더욱 활발한 봉사활동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스무살 청춘'이 된 전주자원봉사센터의 지난 20년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와 영상 상영으로 문을 연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동상상과 동화농민혁명, '이거두려' 참봉이 있었던 전주지역 자원봉사의 태동부터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자원봉사파를 신설하고 전국 최초의 자원봉사 마일리지 차감제도를 시행하는 등 대한민국 자원봉사 1등 도시가 되기까지의 모습을 함께 공유했다.

실제 전주자원봉사센터의 노력으로 인해 전주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3개 자원봉사단체가 등록되고, 전주시 전체 인구의 30.9%인 20만954명의 등록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등 자원봉사 선도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자원봉사자 등록률(24.8%)보다 6.1%p 높은 것으로, 이들의 총 봉사시간인 155만8000여 시간을 최저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17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주 시 20만 자원봉사자를 대표해 1만 시간 이상 봉사를 펼친 김남규 행복하게 회장과 헤어나눔공작소 이성기 씨, 고재국 씨 등 3인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한 전주지역 탄소소재 강소기업인 ㈜유나온(대표 임동욱)은 기업 부분 감사패를 받았다. 이 기업은 올해 센터 20주년 및 몽골 해외봉사 10주년을 맞아 낙후지역인 몽골 비오르비나트에 전주형 버스승강장과 탄소발열의자를 직접 가지고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과 기부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전주시생 활체조지도자협의회 축하공연과 20여 자원봉사 단체의 장기자랑, 단체 소개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인 문화페스티벌이 펼쳐졌다.

한편 시자원봉사센터는 이날 기념 행사를 일회용품이 일절 사용하지 않고 점심식사는 전주푸드 보온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행사' 형태로 진행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지역 장례식장 17곳과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 체결

전주시가 환경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장례식장의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시는 시민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량의 일회용품을 배출하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장례식장 1곳당 연간 밥·국그릇은 72만개, 접시류는 144만개를 배출하고 있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장례식장에서만 연간 2억 1600만개의 일회용 접시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단체와 함께 관련법상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주지역 17개 사설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유도해나가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전주지역 17개 장례식장 중 10곳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할 뜻을 밝혀 왔다.

시는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10개 장례식장 대표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오는 23일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컨설팅 결과가 도출되면 각 업체 대표와 면담을 통해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실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17개 업체가 전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전주시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속가능 도시발전 사례 학습

김승수 전주시장, 21~29일 호주·뉴질랜드 순방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해외출장길에 오른다.

전주시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주요부서 과장, 한국철도기술원 직원 등 21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대표단이 대중교통·문화관광·예술교육·정원도시 분야의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오세아니아를 순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오세아니아 순방에서 전주시 대표단은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중교통, 문화, 예술교육 분야의 감점을 지닌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와 오클랜드 등의 도시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전주시 대표단은 먼저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도입여부를 검토 중인 관광트램이 운영 중인 호주·뉴질랜드 도시들을 방문해 운영현황 및 문제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또한 문화교류 영역을 넓이기 위해 1975년 설립된 문화예술지원 및 자문기구인 호주 예술위원회를 방문해 주요 프로젝트와 시민 예술참여 방식을 확인하고, 시드니 시의원과 문화교류 추진을 위한 면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 대표단은 예술교육 도시·천만구루 정원도시 관련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호주 멜버른 아트플레이와 로양보카니카를 차례로 방문하고, 뉴질랜드의 마가렛마히 놀이터, 워터뱅크 크래프트 놀이터, 투이 글렌공원 등 다양한 아동놀이시설 견학을 통해 야호아이놀이터 사업에 접목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청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순방은 트램 도입에 앞서 실제 운영사례를 점검하고,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예술교육도시, 정원도시, 야호아이놀이터도시 등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충경로, 참여·소통으로 숨 쉰다

전주시, 내일 600m 구간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

자동차가 비워진 전주시내 중심도로가 전주시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공동체들이 재능을 펼치는 축제장이 된다.

전주시는 오는 19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풍패지관(객사) 앞 충경로 600m 구간의 자동차 운행을 통제하고, 차가 비워진 도로를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차 없는 사람의 거리는 '도로의 주인은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라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시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이날 평소 자동차로 가득한 충경로의 교통 기능이 일시 정지되고 비워진 공간에서는 전주지역 공동체들이 마련한 다양한 볼거리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시민기회관, 사회혁신센터 등이 함께 기획한 이번 '차 없는 사람의 거리'에는 ▲청소년의 거리 ▲사람의 거리 ▲혁신의 거리 등이 운영된다.

또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콘서트 △청소년 동아리들이 운영하는 체험부스 △시상식 △착시예술 △게임존 △휴식공간 △원도심 상인들의 참여부스 등으로 꾸며져 충경로를 시민들의 활력으로 가득 채울 계획이다. 차 없는 사람의 거리 곳곳에는 시민들의 편의와 원활한 진행을 위한 운영부스도 배치된다. /뉴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차 없는 사람의 거리의 원활한 진행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충경로 해당 구간에 대해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한편, 해당 시간에 운행되는 시내버스 노선은 공구거리와 전주천동로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임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는 공무원과 경찰, 모범운전자,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의 인력이 배치돼 우회도로 안내 등 차량통제에 따른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내버스 우회도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공구거리와 전주천동로, 시청주변 등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이항로 진안군수 당선무효 '확정'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가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